제 53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요괴화의 전통과 창조

고마쓰 가즈히코 (小松和彦)

요괴화는 일본의 공립 박물관을 비롯하여 일본 국내에서 전시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한적이 있다. 최근에 사람들이 요괴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현대의 사람들이 시각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책을 보기보다는 비디오를 보기 좋아하고 글자보다 그림과 영상에 더욱 익숙해진 것이다.

요괴문화,특히 요괴화는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일본문화라는 전제 하에서 요괴문화의 발굴과 발신, 요괴문화를 일본 문화사에 넣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요괴화는 현대 대중문화의 창조를 위한 소재와 자극으로서 활용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다.

요괴의 정의는 세가지가 있다. 이상한(초자연적)현상-현상요괴,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존재요괴, 그리고 이상한 현상과 존재를 그림화 한 것을 말한다.-조형요괴.

고대와 중세(에도전기)까지의 요괴관은 요괴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 시대의 요괴는 신적, 영적 존재를 인간에게 주는 존재, 이계(異界)에서 메시지를 주는 존재였다. 인간 세계는 우주의 일부이고, 인간의 불행은 그 지배 또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요괴문화에 역시 다양성이 있다. 자연의 요괴화, 도구의 요괴화, 인가의 요괴화 등이 있다. 오니(鬼)신앙으로서 일컬어지게 되었고 모습은 오니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애니미즘이 자리잡고 있다. 이 요괴문화에는 불교사상이 침투를 하여 변용하였다. 죽음과 사령을 관리하는 내용과 원령의 공양과 성불의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요괴화의 역사를 개관해 보면 나라와 헤이안 시대에는 본격적인 요괴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화의 일부로서의 요괴화는 있었고, 동물이나 다른 형태의 나타났다. 가마쿠라와 무로마치 시대에는 조형요괴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오니와 자연계의 요괴 시대가 되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요괴화로서 [北野天神縁起絵巻]라는 두루마리로 된 그림이 있다.
무라마치에서 에도초기까지에는 조형요괴가 변모하여 도구계의 요괴가 증식하고 심지어 주

인공까지 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요괴문화의 독자성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요괴화로서 [百鬼夜行絵巻]이 있고, 이 그림은 도구요괴를 집대성하여 도구 요괴가 총망라 되어 있다.
에도후기에서 메이지초기는 인간이 요괴를 증식시키는 시대가 된다. 즉 인간이 요괴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소용돌이 같은 현상 요괴를 조형요괴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에도 시기에는 요괴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시대에는 인간이 요괴를 만들어 내고 이계(異界)와 단절하였다. 오락으로서 요괴가 등장하고, 민간 이야기를 소재로 당시 화가들이 요괴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요괴의 수가 많아져서 도감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외우기도 하였다. 막부말기와 메이지 시대까지 계속되어 요괴오락문화가 생겼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요괴화는 박명의 대상이 되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외면적 존재의 요괴에서 내면적 존재로 나타났으며, 그 한 형태로 정신병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요괴화는 오락으로서 다시 부흥되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코믹스의 소재로서 요괴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즈기시게루라는 만화가는 오락문화로서 요괴문화를 재생산하고 요괴호의 전통의 계승과 창조를 하고 있으며, 미야자키하야오 같은 감독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요괴화는 지금도 창조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일본요괴회화,조형문화사의 연구]가 새겨져야 하고 요괴화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하여야 한다.